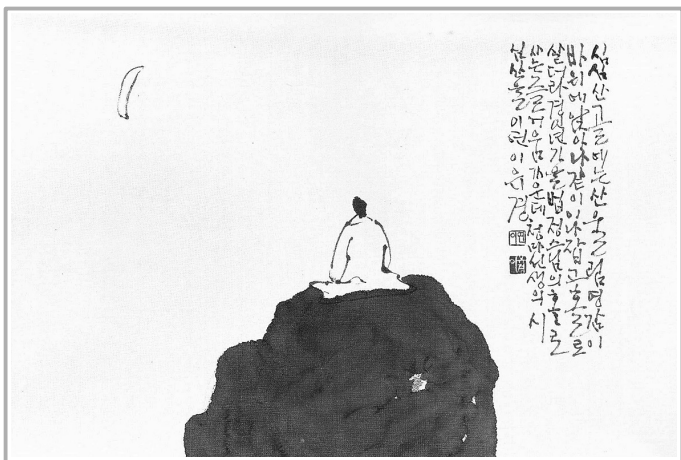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1 / 8



심심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시나 잡고

홀로 살더라

- 청마 선생의 시 심산深山
법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58쪽

스님이 소릿적부터 즐겨 외었다는 청마 선생의 시 귀가 나도 좋아서 읽고 또 읽어보며, 그 곳 바위에 앉아 보고 싶은 심정이 일어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1 / 8

법정스님 편지 / 법정	4	대도행 보살에게
이달의 법문 / 현장	6	조선 선비들의 연꽃사랑
산골만화 / 정태경	9	바람
사색의 뜰 / 홍정근 허태기	10	내 마음 속 당신 청포도
한국의 답 / 박학준	12	화엄사의 탑
이런 생각 한번 어때요 / 박창근	14	사람들의 욕식 위해 사람들이 굶는다
차 내음 가득한 시간	18	나라 사랑, 나라 꽃 무궁화차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임	21	7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25	서울모임
	28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30	8월의 길상사 소식 모임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1년 8월 1일 발행 / 통권 198호 / 등록번호 라08706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석현장 / 편집인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진 /
인쇄처 능인전산품 / 부산모임 : (051)896-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17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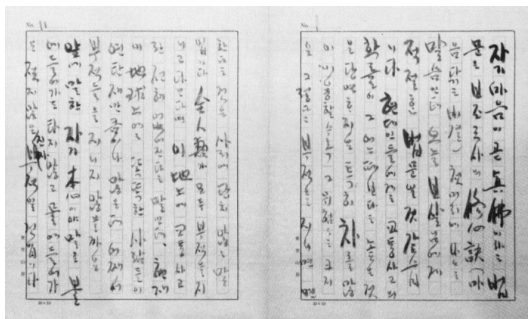


대도행 보살에게

法頂 (스님)

자기 마음이 곧 진불이라는 법문은 보조국사의 수심결(修心訣, 마음 닦는 비결) 첫 머리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보살님에게 적절한 법문일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교통사고의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당연하지요. 특히 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 위험도는 크지요.

그렇다고 부적을 지니면 면한다는 것은 사리에 당치 않는 말입니다. 전 인류(全人類)가 모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면 이 지상(地上)에 교통사고란 전혀 없어진다는 말인데, 현재에 지구상(地球上)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연탄재만큼이나 많은데 어째서 부적을 지니지 않을까요.



앞에 말한 자기 본심이야말로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은 진짜 부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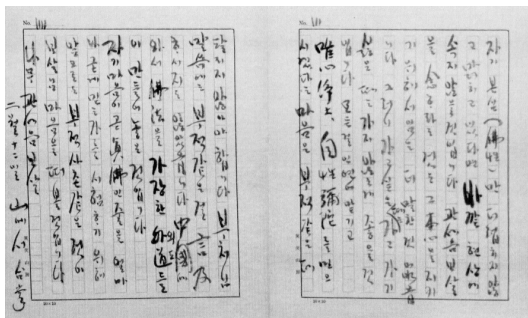
자기 본심(佛性)만 더럽히지 않고 맑히고 있다면 바깥 현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念)하라는 것도 그 본심을 지니기 위해서임을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 가고 싶은 때는 가고 가기 싫은 때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모든 걸 인연에 맡기고 유심정토 자성미타(唯心淨土 自性彌陀)를 믿으시겠다는 마음은 부적 같은 데 팔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부적 같은 걸 언급(言及)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中國)에 와서 불법을 가장한 외도(外道)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곧 진불(眞佛)인줄을 얼마나 굳게 믿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사촌 같은 것이 보살님 마음을 떠 볼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二月 十二日 山에서 合掌





조선 선비들의 연꽃사랑

玄 藏 (스님)

삼복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연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했다. 조선선비들 또한 연꽃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연꽃을 사랑하면서 생긴 계모임을 ‘청련계(淸蓮契)’라고 하기도 했다. 청련계는 들을 청자에 연꽃 연자, 아침 해 뜨는 시간에 연꽃이 피기 때문에 연방죽에 가서 뗏목을 빌려 타고 방죽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연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연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즐겼다.

그리고 연잎에 맺힌 이슬을 모아 차를 달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물이 좋아야 되는데, 물중에서 최고의 물은 아침 연잎에 맺힌 이슬이고 연잎이슬을 모아 그 물에 우려낸 차를 최고의 차, 하로차(荷露茶)라고 불렀다. 또 연잎의 이슬을 모아 엿을 고았는데, 하로당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연꽃이 피어나면 정자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시회를 여는데 그 때 마신 술을 하심주(荷心酒)라고 불렀다. ‘선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정화해야 하는데 그것을 연꽃한테 배워야 한다’ 해서 하심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때는 술잔이 필요 없이 술잔을 대신 한게 둥근 연잎이다. 연잎에다 술을 붓고 연줄기를 자른다. 연근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이 연 줄기까지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대로 이용하여 긴 연 줄기를 가지고 연잎에 술을 담아서 빨아마셨다. 이 모습이 마치 코끼리 코와 같다고 해서 상비주라고도 부르고 또 연꽃의 마음을 배우는 술이라고 해서 하심주라고도 불렀다.

대원사에서는 연차를 할 때 연꽃을 우려가지고 연잎에 담고 연줄기를 빨대 삼아서 연꽃과 연잎과 연줄기의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차를 연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즐기고 있다.

동양에선 정원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연꽃을 잘 감상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정원이 만들어 진다. 중국 정원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것이 항주의 줄정원이다. 여러분들이 줄정원을 가게 되면 연못과 정자와 연꽃을 어떤 식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건축이 됐는지 유념하면서 돌아본다면 동양 정원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줄정원에는 유은각이 있고, 부용사가 있고, 원향당이 있다. 유은각이라는 정자는 차를 마시며 연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연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기 위한, 풍치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부용사는 연꽃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다. 원향당은 멀리 바람결에 실려 오는 향기를 맡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나라에도 궁궐을 짓고 연못을 지었다. 경복궁에 가면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창덕궁에는 부용정이 있다.

연꽃에 대해서 쓴 글 중에 만고의 명문장으로 알려진 것이 119자로 이뤄진 송나라의 주돈이가 쓴 『애련설』이다. 거기 보면 향원익청(香遠益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꽃의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고 향기롭다’는 뜻이다. 그 말에서 유래되어 지어진 정자가 바로 향원정이다. 연꽃에 대해서 남긴 최고의 명문장, 주돈이의 애련설을 우리말로 옮겨 보겠다.

“물과 육지에 나는 꽃 가운데 사랑할만한 것이 매우 많다. 진나라의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고 당나라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란을 대단히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홀로 연을 사랑한다. 연꽃은 진흙에서 났으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깨끗이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다. 줄기의 속은 텅 비어도 겉모습은 반듯하게 서있으며 넉쿨지지도 않고 잔가지 같은 것도 치지 않는다. 그 향기는 멀리서 맡을수록 더욱 맑고 청정하다. 깨끗한 몸가짐, 높이 우뚝 섰으니 멀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요, 가까이서 감히 어루만지며 희롱할 수 없도다. 그래서 나는 국화는 꽃 가운데 은사라 할 수 있고,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자라 할 수 있고,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애련설에서 한 글자씩 따서 연을 찬탄하는 시도 짓고 정자이름도 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덕궁에 있는 정자를 부용정이라고 하는데, 부용(芙蓉)이라는 말은 연꽃이 피어나기 전의 봉우리를 뜻하는 말이다.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애달픈 노래 부용산은 벌교 부용산이 배경이다. 보길도에는 부용동정원이 있고, 안동하회 마을에는 부용대가 있다. 그리고 김제역 다음에 부용역이 있다. 부용역은 부용지라는 연못에서 유래했고, 부용산이나 부용대는 연꽃 봉우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연꽃이 처음 피어나는 6월 24일을 옛사람들은 연꽃의 생일이라고 불렀다. 8월말까지는 전국의 연꽃 명소에서 연꽃을 즐길 수 있다. 연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향기를 깊이 느끼려면, 해 뜨기전에 연방죽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연꽃 봉우리가 열리는 모습은 새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며 그 속에 보이는 연밥과 꽃술은 극락의 궁전이 된다.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향기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아침에 여기저기 피어나는 연꽃을 보노라면 향광장엄 연화불국(香光莊嚴 蓮花佛國)이란 표현이 떠오른다.

해 뜨기 전 연방죽에 도착하면 연잎마다 맺힌 이슬들이 보인다. 두손으로 연잎을 받들고 툭툭 건드려 주면 이슬방울들이 작은 수정알이 되어 연잎 가운데로 모인다. 몸을 낮추고, 연잎을 오무려 입안에 갖다대면 하늘의 감로, 연잎의 향을 머금은 이슬이 내 몸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연꽃은 씨를 심어 발아 시킬 수도 있고, 화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집안에 화초를 가꾸듯이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에도 연꽃과 수련 하나씩 가꾸어 보기를 권한다. 



바람

정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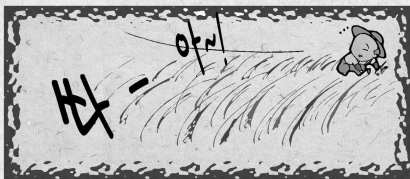
늦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벌 받는 셈으로
땀벌에 나가 일하기로 했다



강한 햇살과 장마뒤의
습한 땅은 흉흉한 사우나다



지칠 때쯤
어디선가
시원한 소리가
들린다



에어컨 선풍기와 비교할 수 없는
시원함이다 벌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러 나왔나 보다





내 마음 속 당신

지어 홍 정 근

폴잎에 맺힌 아침이슬처럼 영롱하고
 아침 햇빛에 비친 눈보다 찬란한 보석처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행복한 비밀
 마음속 깊이 스며온 맑은 영혼을 가진 당신!

눈을 감으면 당신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 같고
 가슴은 메아리치듯 가깝고도 먼 당신을 불러보지만
 언제나 당신은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맑고 향기로운 당신은
 바깥사람에게 보여주기에 너무 큰 보물
 그동안 가두었던 마음을 풀어내어
 하늘같은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말로써 다 하는 그런 사랑보다
 침묵으로 마음의 향기를 전할 뿐
 선불리 말하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환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섭니다

티끌 없는 순수함으로 위선보다 진실을 얘기하며
 소유하지 않는 빈 마음으로
 바람에 떨구는 한 잎의 꽃잎처럼
 철저한 침묵으로 변함없이 서있으렵니다 

- 스님을 그리며...

청 포 도

지우 허 태 기 (시인, 전문포교사)

하얀 눈
뿌리에 안고
이파리로 하늘 담아

영롱한
7월의 푸른 꿈
알알이 매달고

새콤달콤
침 삼키며
초롱초롱 무르익은

청포도 한 송이
고운 접시에 올려
모기향 피워 놓고

별들의 이야기
들으며
여름 밤을 심는다. 

원고 투고 바랍니다.

● 원고 보내주실 곳 : clean94@hanmail.net 또는 사무국으로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소식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화엄사의 탑

박 희 준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박희준님은 사찰생태문화지킴이로 활동 중이며, 우리 문화유적과 풀과 꽃, 나무 하나하나에 애정과 관심이 넘치는 분이며, 본모임의 숲기행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숲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 스님 연기조사가 대웅상적광전과 해회당을 짓고 창건한 절로 이 절의 대표적인 탑으로 는 각황전 북서쪽 산자락의 효대孝臺에 신라시대에 세워진 ‘화엄사 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국보 제35호)’과 대웅전 앞마당에는 ‘화엄사 동오층석탑東五層石塔(보물 제132호)’, ‘화엄사 서오층석탑西五層石塔(보물 제133호)’ 등이 있다.

사자삼층석탑이 세워진 시기는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선덕여왕 14년(645)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 73과를 모시고 세운 사리석탑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 탑은 지난 호에서 소개한 불

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형석탑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1층 기단에는 각 면에 천인상 3구씩 양각으로 새겨 넣어 총 12의 천인상을 새겼다.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과 상륜부를 얹은 일반형의 방형석탑을 하고 있으나, 상층기단에는 우주 대신에 연화대에 꽃어얹은 암수 두 쌍의 사자 4구를 네 귀퉁이에 세웠고 가운데에는 찰주 대신에 석상을 세웠다. 이 탑의 사자들은 꽃어얹은 자세와 입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 가운데 세워진 합장한 스님 모양의 인물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 모습이라고 전해진다. 이 탑을 제대로 보려면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탑 앞에 서있는 석등과 함께 연관지어 바라보아야 한다. 석등에는

간주석 대신에 사사자삼층석탑을 바라보며 한쪽 무릎을 세운 채 차를 올리는 모습의 인물상이 있다. 이 세상의 인연이 다한 연기조사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위하여 연기조사가 세운 것이라 전하지만 화엄사의 창건시기와 사사자삼층석탑이 세워진 시기를 비교해보면 탑 내부의 스님상은 자장율사의 어머니이고 차를 공양하는 인물상은 자장율사가 맞는 듯하다.

대웅전 앞마당의 두 오층석탑 중 동탑에는 기단과 몸돌의 귀퉁이에 기둥모양을 새겨놓은 것 외에 아무런 조각과 장식이 없는 반면 서탑에는 기둥조각은 물론 다양한 돌을새김과 장식이 가득하다.

서탑의 기단 1층에는 12지신상(十二支神像)을 돌을새김 하였고, 기단 2층에는 8부신중(八部神衆)을 새겼으며, 탑신 1층의 몸돌에는 4천왕상(四天王像)을 새겼다. 배례석 또한 서탑은 화



< 화엄사 동오층석탑 >



< 화엄사 동오층석탑 >

려한 연화문을 새겨 넣었으나 동탑의 배례석은 다듬지 않은 천연석을 놓았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같은 시기에 세운 탑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두 탑의 형식을 비교해 보면 시대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시대의 기본 형식인 2단으로 된 기단이 아니고 아무런 조각과 장식이 없는 동탑은 백제의 양식으로 보여지고, 각 층의 기단과 1층 탑신에서 다양한 장엄이 새겨지고 지붕돌은 각각 아랫면에

5단의 받침을 갖춘 것과 처마 끝이 경쾌하게 날아오른 점 등으로 볼 때 서오층석탑은 전형적인 신라의 양식이다.

같은 시기인 신라시대(9세기경)에 세워진 두 탑에 서로 다른 나라의 양식을 적용한 것은 불교라는 종교적 통합을 통하여 두 나라의 정신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육식 위해 사람들이 굶는다

박 창 근 (생명과 환경을 노래하는 가수)

박창근님은 10여년간 거리공연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노래로 짓고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 암 스님은 생전에 형형색색의 음료수를 두고 썩은 물이라고 했다. 그 썩은 물의 대열에 늘 앞장서 오던 모 음료회사가 하나가 된다는 주제로 내보냈던 광고를 보면서 필자는 엄청난 충격 받았고,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기 쉽지 않았던 적이 있다.

나무를 베던 사람이, 닭의 목을 치려던 요리사가, 생체실험 대상이 된 쥐에게 약물을 투여하려던 의사가 순간 TV에서 “꼴인”이라고 터져 나오는 합성을 듣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이 해하려 했던 대상 즉, ‘나무와 닭과 쥐’를 열싸안고 기뻐한다. 그래서 축구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그만큼 축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한마음으로 엮어주는 큰 울

림의 역할을 한다는 광고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참 무섭다.

동물과학 저널 ‘Journal of Animal Science’ 편집위원이자 오리건 주립대학 동물과학 교수인 피터 R. 치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축업자들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동물을 어떻게 키우고 처리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육식을 하는 소비자가 대량 생산방식의 계사를 방문하여 닭들을 어떻게 사육하고 어떻게 ‘추수’하며, 또 조류 처리공장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심중팔구는 하늘에 맹세코 닭고기뿐만 아니라 어찌면 모든 육류를 꿔꿌다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고기

를 입에 집어넣기 전까지의 과정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그만큼 현대식 축산업계에 유리한 것이다.”

돼지고기 삼겹살집의 간판로고엔 살찐 돼지가 함박웃음을 웃으며 자신의 살을 뜯어 달라 노래하고 있다. 프라이드치킨 집에는 예쁜 벼슬을 늘어뜨린 닭이 제발 나를 먹여 달라며 유혹의 웃음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전혀 괴롭지 않고 전혀 두렵지 않은 듯 보인다.

도살장에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며, 앞선 동료의 찢겨지는 살덩이에서 뿜어 나오는 피를 쳐다보며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절규의 울음을 우는 소! 제대로 죽지 않은 돼지의 머리를 수차례 둔탁한 무기로 내려치며 잡담을 나누는 도살노동자. 그리고 그의 발아래 널브러진 채 목숨이 붙어 있어 더 괴로운 돼지! 좁은 닭장 안에서, 마치 창고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진 불필요한 기물들처럼 쳐 놓어져 스스로의 삶을 용납할 수 없어 결국 미쳐버리고 마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뜯고 동료의 몸을 뜯어먹는 광기를 어쩔 수 없는 닭!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좁은 유리관에 갇혀 채수

좋으면 한 번의 약물로 세상을 뜨기도 하지만 채수 없는 것들은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운명을 부여받은 실험용 쥐! 이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공존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 자신의, 삶의 모순에 몸서리를 치면서 말이다.

“사육과정을 알면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종일을 굶은 배고픈 아이는 세상의 반대쪽에 살고 있는 소가 그 자신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또한 그 소는 그 아이의 양식을 뺏어먹고 싶었을까? 그들 몸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받아들일 수 없는) 사료를 먹고 미쳐버려서 생긴 ‘광우병’은 다시금 그들을 잡아먹는 우리 ‘사람’의 안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과테말라에서는 다섯 살 미만 어린이 중 75%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영양실조가 너무 심각해서 네 살까지 살아남은 어린이가 50%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과테말라는 대부분의 농경지를 육류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

다고 한다. 매년 4천만 파운드의 육류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식량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은 12억 명이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중에 가축이 먹는 양은 77%에 달한다. 만약 미국의 가축이 먹어 치우는 콩이나 기타 곡물을 사람에게 준다면 14억 명이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가축들을 먹기 위해, 즉 사람들이 육식하면서 살기 위해 사람들이 굶는 형편이다.

“사람들의 육식 위해 사람들이 굶는다”

나는 사실 채식이란 것 -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육식을 극복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베지테리안의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말로 담기에 채식주의는 뭔가 부족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지도 모르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을 진데, 앞으로 더 적합한 단어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길 바라본다. - 을 삶의 가운데로 가져가고자 마음 먹으면서 그 첫 이유가 건강의 안녕을 위한 선택이지 못했다. 사실 인간의 식문화에 육식이 더 해롭고

불필요하며 몸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차츰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할까?

여전히 우리는 늘 우리와는 다른 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생명들, 즉 그들의 삶의 환경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유를 할 수 있고 바르고 그른 것에 관한 주관을 가질 만큼 지적으로 성장한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가면서도 자칫 그로 인해 소홀해지는 환경이라는 개념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게 되는 다른 생명체에 관한 걱정과 염려를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육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시켜주며 지구의 환경과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을 늘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지금이라도 채식주의자란 꼬리표를 당장에라도 떼어내고 말 것이다.

또한 동물들이 필자의 귀에 대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들은 오후
 한나절 한가로운 풀밭을 거닐고 사
 랑하는 나의 엄마 젖을 마음껏 먹
 으며 형제와 친구들과 즐거운 시
 간을 누리며 살고 있지요. 결국 언
 져나 당신들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
 해 우리 몸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을 우리는 저마다 잘 이해하고 깨
 닫게 된 겁니다. 그 어떤 강요와 두
 려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행복한 죽음을 맞
 이하고 있어요. 우리를 걱정하고 마
 음 아파하는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행복하게 당신들
 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속삭여만 준다면 더 이상 채
 식주의자(베지테리안)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각종 자료는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을 참조했습니다.

이런 생각한번 어때요?

햇볕 따사롭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평온 해 보이는

소녀 손에 쥐어진 소세지

그녀석의 삶은 우리와 다르지

어떤 오감의 반응도 인정받지 못해

인간이 예쁜 입으로 공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오늘도 산 채로 매달려

껍질이 벗겨지곤 하지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세요?

생구이 삼겹살은 어떤가요?

멋진 그녀와의 데이트

화려한 조명아래 스테이크

오늘도 그대는 남의 살을 몇 점이나

삼키셨나요?

또 그대는 남의 젖을 몇 통이나 마셨나요?

의심 없이 통용되는 주저 없이 허락되는

이 모든 행위가 이모든 가능성이
 오히려 당신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어떠하시겠어요?

나의 삶이 너의 삶과 맞물려있고
 인간의 불행 또한
 다른 생명체의 불행을 먹고 살죠

진정한 평화를 원하세요?
 행복한 그대 삶을 꿈꾸나요?

파괴 없는 삶을 원하세요?

전쟁 없는 삶을 바라나요?

주어진 만큼만 누리는 것

나눠진 만큼만 갖는 것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허락된 만큼의 욕망

· 박창근 2집(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에 수록된 곡 중에서



나라 사랑, 나라 꽃 무궁화차 8월

동 아시아가 원산지인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새 하얀 꽃잎에 붉은 꽃받침이 있는 홑꽃인 백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정한 것은 백의민족의 상징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정한 지는 90여년이 되었지만, 신라 때는 하늘을 상징하는 꽃이라 해서 천지화(天地花)라 불렀으며, 고려 예종은 고려를 근화향(槿花鄉)이라 불러 무궁화가 나라꽃임을 비치고 있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라면 생명이 오래갈 것 같지만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진다. 7월부터 10월까지 한해의 절반 동안 피고 지는 무궁화는 가지에 구슬같이 짙 달라붙은 꽃망울들이 연달아 피어서 마치 한 번 피면 몇 달씩 가는 양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 백낙천은 “무궁화는 하루 동안에 스스로 영화를 이룬다(槿花一日成榮)”고 했다. 중국에서도 군자의 기상을 지닌 꽃이라 예찬했고, 서양에서도 ‘샤론의 장미’라 하여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으로 여겼다.

무궁화는 한자로 목근(木槿), 근화(槿花), 훈화(薰華), 순영, 일금, 일화, 번리초, 조개모락화 등으로 부른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는 무궁화를 우리의 토질에 맞게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다. 배달, 화랑, 아사달, 사임당, 한빛 등으로 배달민족의 향취가 물씬 나는 이름을 지었고, 그 종류만도 100여 가지가 된다.

무궁화는 일제시대에 가장 많은 수난을 받은 꽃이다. 일본인들은 무궁화꽃을 보고 있거나 만지면 그 꽃가루가 눈으로 날아와 눈에 핏발이 서고 눈병이 난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 때문에 무궁화는 지금까지 변소

옆, 담 모퉁이에나 심는 천대 받는 꽃이 되었다. 무궁화는 몇 백 년씩 사는 장수식물임에도 일제 때 거의 다 뽑혀 버리고 큰 나무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몇 년 전부터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에서 무궁화가 국민들로부터 친근하고 사랑받는 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궁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궁화는 아담한 관목의 꽃나무로 정원수로 널리 심고 있으며 울타리로도 이용된다. 옛날부터 동서양에 약용식물로 널리 알려진 무궁화는 나무껍질과 뿌리를 각종 위장병과 피부병 치료제로 써왔다. 또한 꽃봉오리는 요리에, 꽃은 꽃차의 재료로 써왔으며, 무궁화 껍질과 뿌리는 종이의 원료로 사용되고 다른 약재와 섞어 위장병 치료제로도 쓰였다. 꽃이 아름다운 만큼 무궁무진한 약성을 지닌 약초이다. 특히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뿐 아니라 꽃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 설사가 멈춘다고 소개했다.

꽃을 꺾어 말렸다가 차로 마신다는 기록은 허준의 ‘동의보감’ 중 ‘탕액’ 편에 이렇게 적혀 있다.

“약성은 순하고 독이 없으며 장풍과 사혈을 멎게 하고 설사한 후 갈증이 심할 때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으며 잠을 잘 자게 한다. 꽃은 약성이 차고 독이 없으며 적이질, 백이질을 고치고 장풍, 사혈이 있을 때 볶아서 먹거나 또는 차로 달여서 마신다.”

〈본초강목〉에는 좀 더 상세하게 적혀 있다.

“부인들의 적대하증, 백대하증 치료에, 종기의 통증을 멎게 하는 데, 또 음 치료제로 쓴다. 달인 물로 눈을 씻으면 눈이 맑아진다. 조한 것을 윤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입추와 처서가 들어있는 8월이면 무궁화의 화려함은 절정에 달한다. 이때 활짝 피지 않은 무궁화 3송이를 따서 꽃심과 꽃받침은 떼어내고 물에 행군 다음 찻주전자에 넣고 100cc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 3분 정도 우린다. 연녹색의 차색과 은근한 향, 담담한 맛이 무궁화 차의 매력이다. 꽃차만으로 싱거운 뎨 녹차를 조금 섞어 우리면 간이 잘된 차 맛이 난다.

오랫동안 저장하여 마시고 싶을 때에는 맑은 날 오전에 다 피지 않은 꽃송이를 따서 꽃심은 떼어내고 찹통에 김이 오르면 살짝 찌서 그늘에 말려 보관했다가 한 송이씩 주전자에 넣고 우려도 된다. 또 말린 무궁화를 곱게 가루 내 보관했다가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넓은 사발에 담고 뜨거운 물 100cc를 부어 휘저어 마신다. 더운 여름이지만 따스한 차가 들어가 속열을 밖으로 발산시켜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 무궁화차 즐기는 방법

- 꽃이 활짝 피기 전에(꽃봉오리가 더 좋다) 채취하여 꽃술(꽃수염)을 버리고 그늘에 잘 말려 보관한다.
- 이렇게 말려둔 것을 1일 15~20g 물 500cc에 넣고 은근한 불에 달여 마시든가 또는 꽃을 약간 볶아 곱게 가루를 내어 사용하든가 한다.
- 달여 마시는 경우 이 분량을 하루에 3회로 나누어 마신다. 가루를 내어 마시는 경우 열탕 1잔에 가루를 1스푼씩 타서 마신다. 이때 설탕을 쓰지 않고 벌꿀을 1스푼씩 타서 마신다.



특별한 날 자녀들과 함께 무궁화차 마시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 - 편집자 주(자료인용: Daum 백과사전)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활동 이야기 : 권미자 모듬장)**

- 7월 4일 : 급식봉사를 하다보면 다른 봉사 팀과 한 조가 돼서 활동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각 봉사 팀마다 나름대로 일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른 팀과 같이 활동을 하려면 좀 더 신경 쓰고 서로 배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활동한 팀도 맑고팀과는 일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달라서 그런지 급식시간 내내 서로 불편하고 얼굴 찡그리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 일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러니저러니 말을 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말들 또한 마음공부라 생각하며 흘려버리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봉사자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7월 11일 : 월요일에는 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날 보다 많으신데, 연일 계속된 장마 때문인지 평소보다 적게 오셨습니다. 덕분에 제일 늦게

일이 끝나는 식기세척을 맡은 맑고팀도 오늘은 조금 일찍 봉사를 마쳤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마음 다해 함께하시는 모든 봉사자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수요팀)**(활동 이야기 : 이에진 나눔 활동가)**

- 7월 20일 : 첫째 수요일에는 기업체 단체봉사가 있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고하셨던 변운정 모듬장이 취직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번 주에도 두 개의 기업체에서 나와 주셨더군요. 봉사자들이 많아서 저희 팀은 식탁정리를 했습니다. 식탁정리는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고나면 바로바로 식탁을 닦는 일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라 다리가 조금 아프더군요.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 이현주 : 전화하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나봅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차일피일 미루다, 더 아프거나 병원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하시

기도 하십니다. 윤OO할머니는 목이 아프셨는데 계속 참았더니 팔까지 내려와서 디스크로 고생하시네요. 수술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만 하는데 동네 산책조차 힘들다며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운동하시면서 건강하세요.

● 엄경숙 : 박OO어르신께서 꽃들(엄경숙님이 운영했던 찻집)에 자주 오셨는데, 오른팔이 떨어진 듯 아쉬워하시네요. ‘청포도’시 노트를 드렸더니 시낭송회 일정을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신답니다. 어르신 덕에 삶의 활력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세분이 혈압 때문에 힘들어하시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2, 3주 일요일) (활동 이야기 : 홍정근 나눔팀장)

- 7월 10일 : 단체 봉사 팀이 승가원 아동들과 함께 야외 나들이를 나가 실내에 남은 아동들끼리 요가활동을 하었는데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고3 청소년봉사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 새롭게 둘째 주 봉사 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7월 17일 : 둘째, 셋째 일요일 오전에

는 요가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을 향기롭게 이완합니다. 짝꿍을 정하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경직되어 있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안마를 해주면서 요가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방학이라 청소년들의 빗어 넘긴 머리스타일도 한 멋합니다. 수영을 안 깎기도 하고, 살이 찼다며 투덜투덜 하는데 제가 보기엔 키도 크고 날씬하기만 합니다. 활동을 마치고 청소년 방학봉사활동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 계곡 물놀이를 다들 원했습니다. 아동들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날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인데도 학교에 가야돼서 좀체 시간이 안 맞아집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원에 학교에 공부하기 바쁩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선물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주 목요일)

(활동 이야기 : 홍선주 모듬장)

- 7월 14일 : 계속 되는 장마 속에 이번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

니다. 어르신들이 점심 드시고 쉬는 시간, 비가 오니 어두운 방에서 불도 켜지 않으시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음악치료 시간이 2시부터 시작되니 어르신들의 단잠을 깨워야 하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살며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시작할 때는 참석률이 저조하다가 오르간 소리와 노래 소리에 이끌려 한 분 두 분 나오셔서 어느새 반가운 얼굴들이 속속 보입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오셨다가 자신들만의 18번을 부르시면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십니다. 어르신들은 비에 약하시다. 비오는 날이면 허리, 다리, 머리가 아파서 또 소화가 안돼서 못 나오시겠다면서 누워 계신답니다. 그러다가도 음악치료시간에 참석하셔서 예전 즐겨 부르시던 노래 부르며 박수도 치고, 같이 웃고 어깨춤 추시다 보면 정말 그랬던 주름살이 웃음 주름살로 바뀌어 갑니다. 양로원 복지사들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음악치료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주 헤어질 때면 즐겁게 헤어져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처음엔 옛날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보

이시곤 했는데 이젠 웃음을 보이십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것도 음악치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제국군병원 군법당 점심지원 자원활동(2, 3주 일요일)

(활동 이야기 : 연혜숙 관리팀장)

● 7월 10일 :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난 달 군인들과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7월에는 팔빙수를 해주겠다고……. 군부대 안에서 팔빙수를 먹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병원 근처에 사는 회원님께 상황설명을 하고 도와주십사 했더니, 근처 제과점을 섭외하기 시작하셨고 다행히 한 제과점에서 출장을 나와 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군병원에도 소문이 돌았는지 평소보다 20명은 더 온 듯합니다. 한 장병은 선임이 근무 서고 오니 꼭 남겨 달라고 거짓말 없이 8번을 얘기 하더군요. 벽제국군병원 군법당에서 작은 파티가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피자과 팔빙수에 길상사에서 준비해준 수박, 과자, 떡 등…….

그리고 군 법당 냉장고가 노후되어 작동이 되질 않는데, 혹시 집에 냉장고를 바꾸시는 분이나, 꽤 쓸 만한 물

건이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7월 17일 : 가끔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원 활동가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가 할 테니 가서 조금이라도 더 쉬라고, 군 생활 잘하라고……. 엄마의 마음은 그런가 봅니다. 조금 더 먹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조금 더 쉬게 하고 싶은 마음! 엄마의 마음은 그런가 봅니다……. 모두가 내 아들이라고……. 법회가 끝난 뒤 법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어떤 때는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기가 좋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며 성장하겠지요. 맑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활동 이야기 : 김소영 활동가)

● 7월 7, 8일 : 상추와 깻잎처럼 자주 접하는 채소도 있었지만, 생소한 쌈채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양파, 고추, 다진 고기를 골고루 넣고 직접 만든 강된장, 용기에 담아서 새지 않게 잘 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뭐지 하고

못 알아보실까 친절한 안내멘트까지 적어서요. 두 번째 반찬은 맛있게 양념된 도라지 무침! 일정하게 쌈채소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귀찮을 수 있는 작업도 모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 7월 14일 : 둘째 주 목요일은 김치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두꺼운 비닐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죠. 덕분에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끄떡없었어요! 활동 중에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시간 내에 활동을 종료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기도 전에 묵묵히 뒷마무리까지 해 주셨던 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반찬을 지원하는 밀반찬 조리활동에 남자 봉사자(개인, 대학생,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시간이 되는 남자 분들께서는 길상사 주차장 옆 맑고 향기로운 조리장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모임

2011년 맑고 향기롭게

8월 녹색나눔장터 안내

8월 녹색나눔장터는 7월 장터에 이어 여름장터 2편입니다.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은 장터를 마지막 일요일에 길상사 프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경제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대형마트처럼 다양한 물품은 없고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원들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순환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삼선교 분수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참가 및 물품 접수는 장터 15일 전부터 받습니다.
- 참가 접수는 사무국으로 전화로 신청자 이름, 연락처, 참가인원수를 알려주세요. (참가자 제한은 없습니다.)
- 장터 물품후원은 사무국으로 직접 또는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가비는 없으며, 수익금의 20% 이상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모두 정산해 연말에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서울(수도권) 숲기행

8월 일정 안내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은 자연의 소중함을 내 온몸으로,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첫째 토요일 진행되며, 8월 숲기행 코스는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은 작지만 웅골차다는 느낌을 줍니다. 도심에서 쳐다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일단 올라가면 입이 짝 벌어지는 산입니다. 기차바위, 치마바위, 부처바위, 삿갓바위, 범바위, 선바위... 아기자기하고 기이한 화강암 덩어리들도 볼 만하지만 발길을 멈춘 곳마다 드러나는 서울 조망이 일품입니다.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한강이 도심과 어우러진 풍경은 '천하의 명당'이라는 서울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에 충분합니다. 숲기행은 많은 곳을 둘러보기 보다는 숲길을 여유롭게 걸으면서, 식생에 대해 보고 느끼는

것이 목적입니다.

준비물은 도시락,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운동화), 우산, 카메라, 돋보기, 펴기도구입니다.

■ 남은 일정:

4회: 8월 6일 - 인왕산 기차바위

5회: 9월 3일 - 도봉산 원도봉 계곡
망월사

6회: 10월 1일 - 용마산 ~ 아차산

7회: 11월 5일 - 우이령

◎ 입금계좌(1만원): 외환은행

301-22-00270-1 (맏고 향기롭게)

승가원 장애아동들과 함께

야외 물놀이 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승가원 아동들에게 원내 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연을 벗 삼아 물놀이의 기회를 마련하여 승가원 아동과 맏고 향기롭게 청소년 자원봉사자 간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구운천입니다. 대성리역을 중심으로 북한강변 8만여평에 이루어진 대성국민관광지에는 산책로, 피크닉장, 야영장에

숲길이가 조성되어 있으며, 여러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합류되는 구운천이 바로 곁에 있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장 소: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구운천
- 일 정: 8월 21일(셋째 일요일)
- 참가자: 아동 15명, 청소년 봉사자 20명, 인솔자 4명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극락전 뒤편 ‘세계일화실’에서 행해집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이라면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8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맏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 8월 3일(수),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세상을 맏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 8월 4, 11, 18, 25일 / 금 - 8월 5, 19, 26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 활동 / 1, 2, 3주 목요일(8월 4, 11, 18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8월 1, 8, 15, 22, 29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8월 3, 17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8월 14, 21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둘째 월요일(8월 8일), 오후 1시 30분 / 세계일화실
- 벽제국군병원(고양시 덕양구) 내 법당 점심 조리봉사 / 둘째, 셋째 일요일(8월 14, 21일)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8월 7일)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8월 14일) 오전 8시 2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모동장 회의 / 8월 24일(넷째 수요일), 오후 7시 / 사무국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8월 3, 10, 17, 24일)오후 1시 30분(삼투,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 / 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 / 선착순 7~8명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팀 / 매주 화요일 의류 재활용 리폼 / 세계일화실
- 숲기행 / 8월 6일, 인왕산 기차바위
- 녹색나눔장터 / 8월 28일. 길상사 트랙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부산모임(051-898-2672~3)

8월 부산모임 정기 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밀반찬 지원활동
매주 수요일 / 10:00~12:00
- 장애인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 /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매주 목요일 /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1, 3주 목요일 /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 병동 목욕봉사
2, 4주 목요일 /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매주 목요일 /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 /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
동목욕 매주 금요일 /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 / 09:30~12:00
-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참선모임
-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참사랑노인건강센터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토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대구모임(053-753-8883)

8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
(배달)나누기
▷ 매주 수요일 / 11시 음식조리, 19시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 7시
- 롬비니동산(장애인 아동 보호시설) 자원봉
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물류창고정리 자원봉사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봉정암 순례 선착순 35명 접수
▷ 일시: 2011년 8월 26일(금)~27일(토), 1박 2일
▷ 동참금: 8만원(식사제공)



경남모임(055-266-0170)

8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 - 매월 넷째 주 화요일 10~14시 / 매주 토요일 10~14시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 / 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정기 운영위원회 - 둘째 화요일 오후 7시 성주사



광주모임(062-236-3129)

8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 3주 금요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8월 10일) 2시 / 사무실



여기는 길상사

< 8월 주말 선 수련회 >

- 일정 : 8월 셋째 주말 20일(토)~21일(일)
8월 넷째 주말 27일(토)~28일(일)
- 대상 : 불자/비불자에 상관없이 참선수련 경험 有無 무관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문의 : 교무실(02-3672-0036)

< 2012년 대입수능 백일기도 >

입시생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입재 : 8월 3일(수)
- 회향 : 11월 10일(목)
- 기도시간 : 새벽 4시 / 사시 / 오후 2시 / 저녁 7시
- 기도비 : 10만원

< 다라니기도 안내 >

- 일정 : 8월 6일(토)
- 시간 : 오후 8시 30분 ~ 10시 30분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시민선방 철야정전 >

- 일정 : 8월 13일(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 장소 : 길상선원
- 참가비 : 무료(간식으로 죽 제공함)

< 삼천배 철야정전 >

- 일정 : 8월 13일(토)
- 시간 : 오후 8시 30분 ~ 익일 오전 4시
- 인례 : 덕암거사
- 장소 : 설법전
- 준비물 : 물병, 땀 닦을 수건, 좌복 보호수건
- 참가비 :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백중기도 회향 안내 >

- 일정 : 8월 14일(일)
- 시간 : 오전 9시 20분
- 장소 : 극락전

< 추계 관음기도 봉행 >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소원성취 발원하는 추계 관음기도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 일정 : 8월 15일 ~ 11월 9일
- 장소 : 극락전
- 기도비 : 5만원

< 공지사항 >

※ 인등 내리실 분은 길상사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교무실 02-3672-0036
종무실 02-3672-5945/6

< 8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및 기도 >

- 초하루 3일기도 / 7월 31일(음 7.1)
극락전 9시 50분
- 수능 입시기도 입재 / 8월 3일(음 7.4)
극락전 9시 50분
- 다라니기도 / 8월 6일(토) 오후 8시 반
(설법전)
- 삼천배 기도 / 8월 13일(토) 오후 8시 반
~익일 오전 4시(설법전)
- 시민선방 철야정진 / 8월 13일(토)
오후 9시~ 익일 오전 4시(길상선원)
- 백중기도 회향 / 8월 14일 (음 7.15)
극락전 9시 20분
- 보름 미타재일기도 / 8월 14일 (음 7.15)
극락전 9시 50분
- 추계 관음기도 / 8월 15일 (음 7.16)
극락전 9시 50분
- 지장재일 / 8월 17일 (음 7.18)
지장전 9시 50분
- 관음재일 / 8월 23일 (음 7.24)
극락전 9시 50분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7월 31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중고등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초기 정전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글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쏟아내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을 잘못 놀리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입니다. 독선자는 자신의 말만 끝없이 늘어놓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이웃과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때론 친한 친구와도 말다툼을 합니다. 사소한 의견의 차이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했다라면 괜찮았을 것을 대수롭지 않은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절친한 벗끼리 등지게 되는 경우엔 울고 싶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지 못하는 마음에는 자비의 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이해할 때에만 자비의 싹이 자랍니다.

요즘처럼 빠른 세상에는 성급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면서 저마다 자기 말과 주장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대는 결국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군 총기 사건의 경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이 깨지는 이유로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을 내세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먼저 내 마음에 자라는 독선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입 밖으로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법정스님의 글 중에서) 